

## 제38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 ‘인천 對중국 교류 현황 및 시사점 ’

- 제38회 충청중국포럼이 지난 3월 27일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천연구원 김수한 박사가 “인천 對중국 교류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충남도 지속가능정책팀과 아산시 미래전략팀 및 시·군의 대외협력팀에서 참석하였다.



<그림1> 제38회 충청중국포럼 사진

- 김수한 박사의 강의는 한중관계, 인천의 대중국 외교 추진현황 및 방향과 종합토론으로 나뉘어서 이뤄졌다.
  - － 김수한 박사는 초기 한중관계는 상호보완적이었다가 사드 갈등에 의해 전환되었다고 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한중관계 내실화를 위해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지방정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전략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 인천시는 ‘환황해 중심도시’라는 주제에 맞게 환황해 지역 중에서도 특히 환발해권 주요 도시들과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사드 갈등 국면에서도 시에서는 중국과의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하였다.
  - － 중서부 및 동북 내륙지역과의 교류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동북지역과는 촘촘한 도시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지역 차원의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하였다.
  - － 마지막으로 지방교류 강화를 위하여 국제교류 전문기구를 마련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인천시에서 추진했던 한중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기지 공동운영사업과 중국 국유기업 경영진 연구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 충청중국포럼 소식

- 강의가 끝난 후 포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있었다.
  - 장기혁 도 지속가능정책팀장은 충남에서도 ‘환황해포럼’을 추진 중인데 인천가 ‘인차이나포럼’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새롭다면 현재 충남에서도 포럼운영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하였다. 이에 김수한 박사는 ‘환황해포럼’은 지리적 이점을 살린 아주 좋은 타이틀이 라면서 ‘폐지’ 보다는 ‘개선점’을 찾고, 지속성을 위해 공무원들이 ‘내 자식’이라는 인식을 가져가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충남연구원 홍원표 박사가 충남에서 ‘환황해’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인터넷에서도 사용·노출되는 빈도가 많아 졌고 또 환황해권이 북한을 품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 였다. 또 김수한 박사는 포럼은 지방외교 구현의 좋은 플랫폼이라면서 인 천의 경우는 자매지역인 텐진의 북한교류지역을 우회적으로 아우르는 방 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도 포럼 비전 선포식 때 유사한 내용으 로 발표하여도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하였다.
  - 보령시가 단둥지역과 새롭게 외교를 추진예정이라고 하자 김수한 박사는 단둥은 역동적인 접경도시라면서 전략적으로 충남이 선양에 거점을 마련 하고 시, 군 차원에서는 단둥과 교류를 추진하되 우선 보령의 경우 축제노 하우나 라이선스 분야로 교류를 추진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였다.
  - 지속가능정책팀의 추진승 주문관이 인천시 대중국 교류사례 중 실패사례 에 대해 문의하자 김수한 박사는 ‘국제교류재단의 해체’라고 생각한 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충남이 현재는 유사한 조직이 없는 상태인데 이 러한 조직은 지역의 국제교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용어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mailto:quanchfu@cni.re.kr))